



“경제대통령 이재명 찍어 달라”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북구갑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북구 말바우시장 앞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이 키운 윤석열 뽑아 달라” 17일 오후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이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앞에서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진척 없는 野 단일화...尹-安 ‘동상이몽’

국민의힘, “安 선거운동 계속 하겠다” 자진사퇴 기대 국민의당, 중도하차설에 불쾌...고인 발인에만 집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단일화에 대한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모양새다. 17일 국민의힘은 안 후보의 자진 사퇴를 기대하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 후보 간 일대일 담판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중도하차설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당에서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당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며 “정치적 유희를 펼칠

때가 아니고 일단 그냥 정치”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가 전날 유세 버스 사고로 사망한 국민의당 선거운동원 빈소를 직접 찾아 안 후보를 위로한 것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안 후보에게뿐 아니라 빈소 밖에서 만난 취재진에게도 단일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권영세 선대본부장 역시 실무진에 “말조심”을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런 상황에서 아권 통합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예의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안 후보의 자진 사퇴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있다. 부인 김미경 씨의 코로나19 확진에 유세차량 사고로 인한 ‘2명 사망·1명 중태’까지 겹쳐져 타락된 안 후보가 선거운동 재개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깔렸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후보 처지가 너무 어려워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중도 사퇴 수순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안 후보가 선거운동을 계속할 수 있겠나?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리지 않겠나”라며 “우리는 단일화 자체를 뉴스로 키우지 않으면서 안 후보의 결단을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당내 일부 인사들은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이르면 이번 주말께 담판을 시도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전날 정서적 교감을 나눈 두 후보가 장래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7일에도 유세를 전면 중단하고 ‘유세버스 사망사고’ 추모 모드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안 후보의 중도하차설을 내심 띄우는 것에도 불쾌한 기색이 엿보인다. 안 후보는 전날 밤 10시까지 고(故) 손영호 논산·계룡·금산 지역선대위원장의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은 데 이어 이날도 사흘째 빈소를 찾은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순위원장의 장례를 유가족들과 협의해 국민의당 장(葬)으로 치르려고 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거저 질

한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부인 김미경 교수와는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치료 경과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의당 선대위는 버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발인을 끝날 때까지 장례에만 집중하기로 하고, 선거운동 재개 여부 등은 이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최진석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발인까지는 장례에만 집중할 것이고,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지는 발인을 마치고 상의해야지, 그 전에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지난 13일 후보 등록을 한 직후 전격 제안한 ‘아권 후보 단일화’ 관련 논의도 내주가 돼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 구청장·시구의원, 전남 도의원·시장·시의원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주 구청장, 시·구의원과 전남 광역의회 도의원, 기초단체 시장, 기초의회 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수·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이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의원선거 40만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

현판·현수막 게시)·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 전자우편 전송·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노마스크 유세 방역 위반 과태료 부과할 수도”

선거운동 과정에 대선 후보들이 다수가 밀집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연설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방역당국이 17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대선후보 유세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연설하는 경우 방역수칙 위반이나 는 질의에 대해 “지자체에서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이라며 “만약 다수가 밀집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착용 의무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광록 기자 kroh@

이낙연, 정몽규 만나 아이파크 사고 후속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16일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원정사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을 만나 사고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로부터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 위원장은 “신망 받는 대기업의 현장에서 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어 발생하는지 전국민 앞에 설명이 되어야 한다”며 대기업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 유가족들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와 보상, 인근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전체 입주 예정자들의 부담과 불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함에 있어 법률적인 대처보다는 피해 당사자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유족 대표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다. 정치라는 것이 불행한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며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하며, 정몽규회장에게 “가서 크게 야단맞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무죄, KT 딸 채용 청탁 김성태 유죄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62)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016년 수사에 나선 뒤 6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반면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성태(64) 전 의원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층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신축원룸매매(신축)

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꿀(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

010-6670-9800